

가을 끝자락 강바람과 함께 소중한 추억만들기



힘찬 출발 지난 8일 열린 '농촌사랑! 자전거사랑! 2014 그린(Green) 자전거축제'에 참가한 광주·전남 자전거 동호인들이 광주시 서구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를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동호인·지역민 700여명 서창들녘~나주평야 강변타고 질주

갈대숲 사이 가족끼리 앉아 글썽씨 자랑 백일장 대회도 성황

가을걷이를 끝낸 서창들녘과 나주평야, 영산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강변을 질주한 '농촌사랑! 자전거사랑! 2014 그린(Green) 자전거축제'가 지난 8일 영산강자전거길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자전거 동호인 500여명을 비롯해 학생·지역민 등 700여명이 참가했다. 광주시사이클연맹과 자전거사랑전국연합 광주본부가 주관하고 광주·전남도가 후원한 이날 축제는 ▲추수를 끝낸 들녘과 생명의 소중한을 일깨우는 '농촌 사랑' ▲영산강변의 정겨운 풍광과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자전거 사랑' ▲가족의 따스

함을 간직하는 '가족 사랑'을 주제로 자전거 거대행진과 백일장대회로 진행됐다. 자전거대행진은 영산강자전거길에서 사랑코스(45km)와 행복코스(25km)로 나눠 비경쟁 퍼레이드로 펼쳐졌다. 갈대밭이 장관인 서창들녘이 바라보이는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를 출발해 서창교~승촌보(25km 반환)~나주대교~영산대교를 거쳐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참가자들은 시원한 강바람을 가르며 영산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했다. 백일장대회는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열렸

다. 백일장은 ▲가을 들녘 ▲농촌의 풍경 ▲자전거는 내 친구 ▲자전거의 추억을 주제로 200자 원고지 8매 이내의 산문·운문 부문에서 글썽씨를 뽑았다. 아들 태형(송정동초4)·태욱(송정동초1) 군과 아내 김경아(46) 씨 등 가족과 함께 자전거 페달을 밟은 김강현(47·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씨는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축제에 참가했다"며 "도심을 벗어나 가을걷이를 끝낸 농촌 들녘, 빼곡히 자리잡은 갈대밭 등 자연 속에서 자전거를 타며 가족애를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아들을 데리고 백일장대회에 참가한 신대호(44)·주선진(37)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자전거축제를 알게 됐다"며 "온 가족이 가깝게 자전거를 타고 느낀 점을 '자전거는 내 친구'라는 주제의 글로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늘푸른 마을' 축하공연도 자전거축제 개최식에 앞서 화순의 '늘푸른 마을' 관현악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산강 승촌보를 지나 자전거 동호인들이 4대강 사업으로 건립된 영산강 승촌보를 지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승촌보 일대는 고수부지 숲과 초진군락이 어우러진 생태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년 가을쯤 영산강 출발 7년간 지구횡단 도전”

세계일주 꿈꾸는 박정웅씨

“내년 가을에 영산강을 출발해 자전거 지구횡단을 계획하고 있어요. 많은 응원 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축제에 참가한 박정웅(25) 씨는 내년 가을 자전거로 세계일주를 떠난다. 영산강을 출발해 중국, 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극, 북극, 러시아, 일본을 돌아오는 7년동안의 여정이다.

“인생이 여행이고 여행이 인생이다”라는 철학을 가진 그는 보다 의미있는 여행을 하고 싶어 자전거를 동반자로 택했다.

자전거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먹고, 자고, 생각하는 여행이다. TV가 아닌 직접 눈으로 세계를 보고, 세계인을 만나 생각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 씨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각종 여행장비를 하나씩하나씩 장만했다. 자전거에 텐트·침낭·코펠·버너·의자·테



자전거로 지구횡단을 도전하는 박정웅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블·노트북·카메라·태양열충전기까지 달았다. 투자 비용이 대략 900만원, 무게는 70kg에 달한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 같다.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면서 “온전히 내 힘으로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 청년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전거 여행은 갖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에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다. 어떻게 헤쳐나갈 지 나도 궁금하다”고 웃어보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전거 길은 노소동락의 길...건강도 챙겨줘요”

(老少同樂)

79세 동갑 친구 이연규·이재웅씨

“인생은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영산강이 정겹고, 무언가를 내려놓게 합니다. 영산강의 선경(仙境)이 되고 싶습니다.”

팔순을 한해 앞둔 동갑내기 이연규(79·광주시 북구 운암동)·이재웅(79·광주시 북구 동림동) 씨가 자전거축제에 나란히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40년지기 친구로 노년을 자전거와 함께 보내고 있다. 일주일에 3~4차례 자전거로 타고 영산강변을 따라 승촌보에 다녀온다. 건강을 위해서다.

이연규 씨는 “이 나이가 되다보니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며 “내 몸이 건강해야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전거 타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 좋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 너무 보람된다.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웅 씨는 “자전거길은 노소동락(老少同樂)의 길”이라며 “세대를 뛰어넘어



동갑내기 친구 이연규·이재웅 씨가 승촌보를 돌아온 뒤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즐길 수 있어 좋다”고 예찬했다. 연로에 자전거가 위험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쓴다. 자전거길에 돌이킬 수 없이 빠져나와 있으면 멈춰서 치운다. 내 안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전거 동호인들을 세

심하게 배려했다. 이들은 “같이 늙어가는 친구 덕분에 노년이 외롭지 않다. 기념으로 자전거축제 깃발을 갖고 싶다”며 행사 깃발과 선물을 서로 챙겨주는 등 친한 우정을 자랑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